

F-02 퇴직·소득중단과 제2의 일

퇴직일·첫 연금일·재취업 수입 사이의 공백과 비용을 먼저 계산합니다.

학습자용

생활 장면에서 출발해 개념·비교·행동·회복 순서로 익히는 본 학습자료

판본 1.0.0 · 기준일 2026-09-01 · 다음 점검 2026-12-01

일반 교육자료입니다. 실제 계약·신청·세금·연금에는 최신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1. 왜 배우는가

퇴직은 소득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 건강보험, 세금, 대출상환과 생활방식을 함께 바꿉니다. 재취업·창업의 기대소득을 확정수입으로 넣기 전에 공백기간과 실패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 전후 현금흐름은 확정된 돈과 기대하는 돈을 구분합니다. 퇴직급여를 생활비·부채상환·창업자금에 쓰는 결정은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역할을 나눕니다.

2. 먼저 알아야 할 말

소득절벽

근로소득이 끝난 뒤 연금 등 다음 소득이 시작되기 전의 공백입니다.

생활 예: 정년 뒤 국민연금 개시 전 기간을 표시합니다.

확정소득과 기대소득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인된 소득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상수입의 차이입니다.

생활 예: 재취업 예상급여는 확정 전까지 보수적으로 봅니다.

퇴직급여의 역할

노후소득·부채·비상자금 등 목적을 나눠 관리하는 기준입니다.

생활 예: 창업투입액의 상한을 별도로 정합니다.

3. 판단 순서

- 1단계. 퇴직일과 확정소득의 시작일을 적는다
- 2단계. 공백기간의 필수생활비·보험·대출을 계산한다
- 3단계. 퇴직급여의 역할별 한도를 정한다
- 4단계. 재취업·창업은 기본·악화 시나리오로 계산한다
- 5단계. 소득이 기대보다 적을 때 중단·축소 기준을 정한다

4. 맞는 예와 반대 예

비교 1

맞는 접근: 확정된 소득과 기대소득을 다른 색으로 구분한다

반대 접근: 재취업 예상급여를 확정소득으로 계산한다

이유: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생활비를 의존하면 공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비교 2

맞는 접근: 퇴직급여 중 창업에 쓸 상한과 중단기준을 먼저 정한다

반대 접근: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추가 투입한다

이유: 노후소득 원천과 사업위험을 분리해야 회복 가능성이 남습니다.

5. 내가 해 보기

가상 퇴직자의 퇴직일·연금개시일·재취업 가능성으로 36개월 소득공백표와 대응순서를 만듭니다.

- 가상자료에서 확인한 사실과 모르는 조건을 나눕니다.
- 비용·위험·권리·기간을 비교표에 적습니다.
- 결정과 이유, 추가로 확인할 공식 창구를 기록합니다.

가상자료만 사용합니다. 실제 소득·자산·부채·계좌번호·가족갈등·피해경험은 적거나 발표하지 않습니다.

6. 문제가 생겼다면

- 추가 송금·서명·해지·앱 조작을 멈춥니다.
- 계약서·설명서·화면·대화·거래내역 등 원본 기록을 보존합니다.
- 1332 금융감독원 금융상담
- 1355 국민연금 고객센터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7. 오늘의 한 행동

퇴직 뒤 3년간 확정소득과 기대소득을 구분해 적습니다.

공식 근거와 이용 전 확인

고용24 중장년내일센터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lId=SC00000268&systId=SI00000428>

고용24 구직급여 신청절차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nntId=CI00001715&systId=SI00000411>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do>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

<https://www.nps.or.kr/pbcpgdnc/mainbiz/getOHAG0059M0.do>

일반 교육자료이며 개인별 계약·세금·법률·투자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전 최신 공식 원문을 확인합니다.